

우리나라 식량작물 작부체계

심강보^{1*}, 김민태¹, 김성국¹, 이종기¹, 권영업¹, 이재은¹, 전원태¹, 정건호¹, 김충국¹, 신수현¹

¹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

[서론]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작부체계 현황 및 필요성과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부체계 연구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작부체계 발전방안에 대하여 방향을 설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작부체계 개념, 필요성 및 현황분석, 주요 연구결과, 향후 발전방향 분석

[결과 및 고찰]

작부체계는 작물의 종류와 그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과 재배하는 순서에 따른 시간배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른 공간배치로 구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집약한 작물의 재배양식이다. 따라서 작부체계는 지역과 농가에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이용하는 영농의 형태로서, 이전부터 농촌현장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던 농사 방법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 작부체계의 변천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보리·벼 2모작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보리, 밀, 콩, 팥, 조 등 다양한 작물이 윤작, 간작, 혼작의 형태로 재배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미곡중심 증산정책으로 작부체계가 단순화되었다. 그 후 1960년대 논 면적의 약 80%에 달했던 답리작이 1990년대에는 쌀의 자급달성과 농가의 소득작물 선호로 시설채소 등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되었다. 2000년대에 와서는 경제성을 고려한 소득작물의 조합과 친환경을 고려한 풋거름작물을 이용한 작부체계가 도입되었다. 오늘날 남부지역은 다양한 작부체계 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중·북부지역은 기온이 낮고 무상기간이 짧아 작부체계에 불리한 환경조건이어서 미맥 중심의 2모작 이외에는 뚜렷한 작부체계가 미흡하다. 그러나 최근 온난화로 작물재배지가 북상되고 있어서 새로운 작부유형 및 재배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소득작목을 연계한 소득형 작부체계, 식량자급률 제고형, 조사료작물과 연계한 조사료 생산형, 기후변화 대응형, 여러 가지를 혼합한 복합형 등 다양한 작부유형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을 접목한 권역별 다양한 작부체계 모형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벼 대체작목 선발, 작부체계 유형별 최적 재배기술 확립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지이용률과 곡물자급률을 향상 등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138870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31-695-4091, E-mail. shimkb@korea.kr